심으로의 재편 등은 과장되어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최근 우리의 가족들이 경험하는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21세기가족〉이 정말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에서 방송되는 점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려지는 내용을 우리 사회가 모두 용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TV 속에 그려질 가족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짐작하게 해 주는 시트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드(미국드라마) 〈모던패밀리〉인데요. 3년 전부터 미국 3대 지상파 네트워크 중 하나인 ABC에서 방송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21세기가족〉이 처음 방송되었을 때 미드 팬들은 〈모던패밀리〉를 베낀 것 아니냐고 강하게 항의했을 정도로 두 드라마는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연상연하 재혼부부가 그렇고, 세 아이를 둔 딸네 가족 구성원들의 캐릭터도 그렇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빌린 "모큐멘터리(mocumentary)"라는 방식까지 비슷합니다. 다만 더 추가된 것이라면, 〈모던패밀리〉에는 아들네 가정이 등장하는데, 그 아들은 동성애자로서 파트너와 함께 베트남에서 입양한 딸과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21세기가족〉이 그리는 재혼가정에 덧붙여 〈모던패밀리〉는 동성애, 다문화의 요소까지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추가한 셈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드라마에 대한 미국사회의 반응입니다. 시청률에서도 언제나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평론가들에게도 꽤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가족과 함께 보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했답니다. TV 프로그램에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에미상이나 골든글로브상도 수차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코스비쇼〉와 비교될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가족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항상 유쾌하게 그려지는데, 굉장히 이질적인 가족 구성원들이지만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다름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현실적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21세기가족〉이나 〈모던패밀리〉가 이 시대 가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돕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다가올 미래에 전형적인 가족이 어떠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 두 드라마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뒷짐만 지고 있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애써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말세타령을 하거나 "평범"한 모습을 벗어난 가족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교회 밖에선 이미 이런 가족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 우리는 아직도 전통적인 가족이 파괴되는 것을 아쉬워하고만 있는 건 아닌지. 어쩌면 이미 교회 한구석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모습인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21세기가족〉과 〈모던패밀리〉. 비록 가벼운 시트콤이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름다운 책

클로드 부종 글, 그림.
최윤정 역. 비룡소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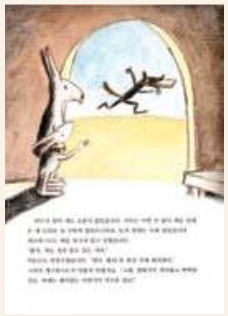
흔히들 그림책은 어린아이가 보는, 그림이 많은 책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림책에 대해 알게 되고 그 언어를 이해하게 되면 될수록 그 매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출판사 사장님은 1980년대에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였는데 어느 날 교보문고에 가서 영국 작가 찰스 키핑의 그림책을 우연히 접하고는 놀라움과 충격을 받고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그림책을 연구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지금은 그림책 작가이자 출판가로서 한국의 그림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클로드 부종의 「아름다운 책」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이야기의 줄거리보다는 주로 작품의 미학적 특성에서 옵니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어우러져서 의미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그림책에는 세 가지 언어가 존재합니다. 글의 언어, 그림의 언어, 그리고 글과 그림이 어우러져서 만드는 언어입니다. 많은 작가는 주로 글의 언어에 의존해 작품을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작가들은 글과 그림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세 번째 언어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글과 그림 언어를 더 잘 읽고 쓰기 위해서는 배움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글과 그림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제3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관찰력이 뛰어난 독자는 그림책의 언어에서도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클로드 부종은 제3의 언어를 만들어 내는데 뛰어난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형 에르네스트와 아우인 빅토르라고 하는, 의인화된 두 마리 토끼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에르네스트가 동생 빅토르와 함께 책을 읽기 시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그림책을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본문의 그림 내용을 장면별로 소개합니다.

1장면: 에르네스트가 책을 집에 가져옴.
2장면: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생 빅토르와 함께 책을 펼쳐 읽기 시작함.
3장면: 책 속에서 자기와 같은 토끼들이 즐겁게 구슬치기를 하고 있음.
4장면: 책 속의 배고픈 토끼에게 여우가 싱싱한 당근 한 자루를 가져옴.
5장면: 책 속의 날개 달린 토끼들이 구름 속을 떠다니고 있음.
6장면: 책 속의 어떤 토끼가 무시무시한 초록용을 때려눕힘.
7장면: 동생 빅토르가 그 장면을 보고 황홀해함.
8장면: 둘이 같이 다시 책을 들여다 봄.
9장면: 책 속의 토끼가 무서운 사자와 여우를 훌라후프 속으로 뛰어들도록 훈련하고 있음.

10장면: 책 속의 큰 토끼가 콩알만 한 여우들을 가지고 놀고 있음.
11장면: 여우가 토끼 굴 앞에 나타나 책 속에 푹 빠진 두 토끼를 바라보고 있음.
12장면: 여우가 토끼들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듦.
13장면: 토끼들은 두려움에 떪.
14장면: 형 에르네스트가 책으로 여우의 머리통을 내리침.
15장면: 형이 반쯤 정신을 잃은 여우의 주둥이에 책을 쑤셔 박음.
16장면: 여우가 책을 입에 문 채 도망을 침. 두 토끼는 책을 또 하나 빨리 구해와야겠다고 말함.



이 그림책에서 그림은 배경의 역할을 별로 하지 않지만 인물의 행동을 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독자는 다양한 시점—글의 시점이 아니라 그림의 시점—으로 등장인물을 보게 됩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실제의 독자(우리)와 가상의 독자(토끼 형제)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책장을 넘기면서 토끼 형제들을 보기도 하고 토끼 형제와 함께 그들이 보고 있는 책 속의 등장인물을 보기도 합니다. 각 장면의 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1, 2장면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는 토끼 형제를 보며, 3, 4, 5, 6장면에서는 토끼 형제가 보고 있는 그림책 장면을 보며, 7, 8장면에서는 다시 책을 보고 있는 토끼 형제를 보게 되고, 9, 10장면에서는 토끼 형제가 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고, 11, 12장면에서는 책을 보고 있는 토끼 형제를 보고, 13장면에서는 여우의 시점에서 토끼 형제를 보고, 14장면에서는 토끼 형제와 여우를 보고, 15장면에서는 토끼의 시점에서 여우를 보고, 16장면에서는 토끼 형제를 바라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시점은 독자가 등장인물과 갖게 되는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독자가 등장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하거나 편안한 시각으로 혹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등장인물과 사건을 보게 함으로써 독자들이 풍부한 문학적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이 작품에서는 그림책이 어떤 매체인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냅니다. 에르네스트는 책을 처음 보고 달려드는 동생에게 "안돼 손 치워! 책은 조심해서 다루는 거야!"라고 주의하라고 합니다. 동생이 "그게 뭐 하는 건데?"라고 묻자 에르네스트는 친절하게 "책은 읽는 거야. 글씨를 읽을 줄 모르면 그림을 보는 거고...자, 형이랑 같이 한번 볼래?"라고 권합니다. 지금 에르네스트는 그림책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림책의 장점 중의 하나는 모르는 언어로 쓰였어도 그림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셋째, 형 에르네스트와 동생 빅토르의 대화는 두 종류의 책 읽기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책에 몰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책을 비판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종류의 태도가 항상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독서의 즐거움이 이 둘 모두에게서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책 읽기의 즐거움은 몰입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비판적으로 읽는 태도도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동생 빅토르는 순진하고 의심 없이 책의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지만, 형은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으로 책을 봅니다. 예를 들어, 책 속의 여우가 토끼들에게 당근을 가져오자 빅토르는 들뜬 나머지 여우의 입장이 되어 "토끼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라고 소리 지릅니다. 동생의 순진한 태도에 대해 형은 "흠, 나라면 그렇게 마음을 놓지 않겠어. 어떤 일이 있어도, 토끼는 여우한테서 도망을 쳐야 해.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법칙이라고."라고 주의를 줍니다. 또 빅토르가 책 속의 토끼가 용을 때려눕힌 장면에 푹 빠져버리자 에르네스트는 동생을 흔들어 깨우고 "책에 나오는 걸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돼"라고 훈계합니다. 그러자 빅토르가 "… 믿는 척하면서 재미있어 하는 것은 돼?"라고 묻습니다. 지금 빅토르는 문학 비평가들이 말하는, 문학작품을 읽는 독자들의 소위 '불신을 잠깐 거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작품은 불신을 잠깐 거둔 상태가 위험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토끼가 콩알만 한 여우들을 가지고 노는 장면을 신이 나게 보고 있는 토끼의 등 뒤에서 진짜 여우가 달려든 것입니다. 그 둘은 순간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다행히 에르네스트가 곧 정신을 차려 반격을 합니다. 에르네스트는 책을 들어 여우의 머리통을 내리치고 여우의 주둥이에 책을 쿡 쑤셔 박아 여우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도망치는 여우를 보고 형제 토끼가 나누는 대화가 압권입니다.

에르네스트는 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봤지? 책은 정말 쓸모 있는거야." 빅토르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빨리 또 하나 구해 와야겠어." 그러자 에르네스트가 덧붙여 말했지요. "그래, 껌데기가 커다랗고 딱딱한 걸로. 속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한 걸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에르네스트가 책의 실용적인 기능과 함께 심미적인 기능도 인정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던 에르네스트가 책이 주는 상상하기의 즐거움을 높이 사고 있으니까요.

이 밖에도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글과 그림 전반에 흐르고 있는 유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토끼 형제의 대화도 그렇지만, 함께 책을 읽는 토끼 형제의 모습은 유머러스하고 정겹기만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그들의 읽는 모습은 그들이 점점 더 책에 몰입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책을 읽기 시작할 때엔 형이 왼팔로 동생의 어깨를 감싸고 있다가 그 다음엔 형의 무릎 위에 동생이 앉아 있고 마지막엔 형의 오른편에 동생이 앉아서 책을 봅니다. 갑자기 늑대가 덤벼들어 위급한 순간에도 형은 동생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동생을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문장은 유머러스하게 표면 아래의 의미를 암시합니다. 즐겁게 구슬치기를 하는 책 속의 토끼들을 보고 빅토르가 부러워하자 에르네스트가 "그래, 눈알 굴리기 운동으론 최고지"라고 대꾸합니다. 예민한 독자는 에르네스트가 단순히 구슬치기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눈치챕니다. 독자도 지금 책을 보며 눈알 굴리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책을 다 읽고 난 후 왜 작가는 책의 제목을 "Un Beau Libre"(아름다운 책)이라고 했을까 궁금해집니다. 불어를 전공한 대학원 학생과 이 제목에 대해 의논했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beau"에 "아름다운" 의미 이상의 풍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몇 페이지 안 되는 분량과 단순한 구도와 형태의 그림 그리고 짧고 쉬운 문장에 이토록 풍부한 의미를 담을 수 있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그림책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까닭은 우리에게 미학적으로도 뛰어나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그림책 작가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품들을 누릴 수 있는 감각과 마음과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녀와 학생과 동료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대표 저서로는 〈그림책의 이해 1, 2〉, 〈그림책의 그림읽기〉, 〈세계 그림책의 역사〉가 있으며 성균관대 생활과학연구소의 그림책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